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한국 자문 위원회 모임

지난 4월 27일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인인 김종열, 고원용 장로와 이도환 한국 지역 공보위원장, 전종철 서울 선교부장, 스웨인 서울서 선교부장, 경인 및 충청 지역 각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 공보 담당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공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한국 자문 위원회 모임이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준비위원장: 고원용 장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경과 보고와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1. 전국 청년 대회

전국 청년 대회(준비 위원장: 서희철 영동 스테이크 부장)는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충북 영동에 있는 마니산 연수원에서 개최된다. 참석 예상 인원은 1000여 명이며 현재 5개 각 신학 연구원 대학부 평의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있다.

2. 6월 6일 헌혈 행사

전국 20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게 된다. 공보 위원회에서 이미 대한 적십자사와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차량 및 인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혀왔다. 헌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나 각 지역 교회와 혈액원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3. 7월 19일 봉사의 날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 별로 해당 지역의 문화 유산이 있는 유적지를 찾아 환경 정

화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되었으며, 5월 20일까지 지역별로 장소를 결정하게 된다. 이 행사는 모든 가족 및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진행될 것이다.

고원용 장로는 모임을 마치면서 이번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가 내적으로는 회원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외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서울 스테이크

어린이날 행사

지난 5월 3일 서울 스테이크 초등학교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초등학교 교사, 어린이,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행사답게 풍선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활동실에서는 게임, 줄다리기, 풍선 터뜨리기 등의 활동이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함께 참여한 부모, 스테이크 부장단, 초등학교 교사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스테이크와 와드, 지부에서 조그만 선물을 마련해서 나누어 주었다.

대부분이 말일성도 2세들이 어린이들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이 교회의 밝은 앞 날을 예견할 수 있었다. (남지원)



수원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4월 12-13일 양일간 수원 스테이크에서는 교리와 성약 6편 9절을 주제로 이용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는 선교 사업을 주제로 최근에 개종한 박상훈, 송광석 형제가 말씀하였고, 고등 평의원인 안재혁 형제는 선교 사업의 경험을 들려주며 우리 모두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씀하였다. 또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이영희 형제는 신권 지도자의 모범을 통하여 회원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임승근 형제가 순종과 축복에 관하여, 이향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된 동기에 관하여, 권오복 자매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성전 사업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하였으며, 고등 평의원인 이중영 형제는 신권의 의무와 성약에 관하여,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조강계 형제는 성전의 중요성과 성전에서 봉사함으로써 받은 축복에 관하여 간증하였다.

맑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 35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일요일 총회에서 왕영은 자매는 교회 복음

을 알게 된 동기에 관해 말씀하였으며, 정재 중 형제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얻은 간증을 전하였고, 이동열 형제는 복음을 알고 나서 겪은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또한 스테이크 축복사인 도길희 형제는 초기 성도들의 희생과 신앙이 이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였고, 이용환 스테이크 부장은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충실히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회원들이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고, 모든 면에서 약속을 지키고,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스테이크가 조직된 이래 가장 많은 10명의 장로와 2명의 대제사가 각각 지지 받았다.

인천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 대회 준비를 위해 식목 행사와 특별 성전 방문을 함 -

지난 4월 26-27일 인천 스테이크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의 감리하에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의 스테이크 대회와는 달리 모임을 감리한 브라운 장로의 권고에 따라, 스테이크 전체 회원들에게 가정의 밤, 경전 읽기, 가족 및 개인 기도 등 가정에서의 신앙 생활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대회 개최 1-2개월 전부터 권고한 후 대회 당일 감리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회원을 지명하여 간증을 들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김창호 형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동하던 마틴 손수레 부대의 일행 중 추위와 굶주림,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 등 가슴에 이는 괴로움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킨 것은 후세의 우리에게 작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 빛을 갈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이날 특별히 초청된 한인상 서울 성전장은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으로 명실공히 "시온의 스테이크"가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브라운 장로는 러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어 수천 명의 회원이 있으며 주님께서서는 현세에서 아주 조용히 놀라운 방법으로 많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므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큰 축복이 임하도록 성도들이 온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권고했다.

일요일 총회에서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은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가운데 성신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하며, 부도덕과 타락, 추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빛을 지고 있다고 말씀했다. 이어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허병식 형제는 척박한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소수의 말미성도들이 신앙의 표본이 되고 있듯이, 개척자 150년을 맞아 우리의 신앙의 수레를 가득 채우자고 말씀했다. 또한 스웨인 서울 서 선교부장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간증했다. 이날 특별히 브라운 장로의 지시에 따라 즉석에서 지명된 세 명의 성도들 중 주안 와드의 류미경 자매는 경전을 통해 어린이들은 죄사유함을 위한 침례가 필요없다는 구절을 읽고 그들의 맑고 깨끗함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으며, 브라운 장로는 형제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당부하였으며,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경전을 읽고 가족간에 대화를 나누며 복음 원리에 따라 살기를 권고했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를 좀더 의미있게 준비하기 위해 인천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식목 행사를 통해 스테이크 센터의 경관을 새롭게 조성했으며, 4월 23일에는 특별 성전 방문일로 정해 단일 스테이크로서는 가장 많은 160여 명의 성도들이 의식에 참여해 한 마음으로 이번 스테이크 대회가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간구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담동 와드의 최응규, 홍종점 두 형제가 대제사로, 만수 와드의 신진민, 김정열 형제, 용현 와드의 이상훈 형제, 부평 와드의 정금식 형제, 계산 와드의 전세완 형제 등 다섯 명의 형제가 새롭게 장로로 지지되었다. (이성열)

부산 스테이크

특별 노변의 모임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4월 20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와 한인상 서울 성전장, 배영천 전임 서울 성전장, 리시먼 부산 선교부장을 초청한 가운데 특별 노변의 모임을 수정 와드에서 가졌다.

이 모임에서 한인상 성전장은 오래 전에 부산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그 후 선교부장으로도 봉사하였기 때문에 부산을 고향과 같이 생각한대며, 이 지역 초기 신앙의 선배들에 관해 말씀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역 대회에는 전임 부산 선교부장들, 해외에 살고 있는 부산 출신의 성도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면 좋겠다는 권고와 더불어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모임을 잘 준비하고,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좀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김종열 장로는 연차 대회에 관한 소식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아 봉사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대회 중에 투병 중인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말씀을 통해 얻은 간증과 살아 계신 예언자를 보고 온 기쁨에 관해 말씀하였다.



스테이크 합창단은 이 모임을 위해 찬송가 100장 "주님 앞에 머리 숙여"를 잘 준비해 불러 주어 모임이 더욱 영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왔으며, 수정 와드를 가득 매운 회원들에게는 이 모임이 영적으로 더욱 고양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이회숙)

부산 서 지방부

보이스카우트 제1755대 모로나이대 발대식

지난 4월 26일 부산 서 지방부에서는 보이스카우트 제1755대 모로나이대의 발대식 및 선서식이 있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부산 스테이크의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들과 선배 대원들이 참석했으며 또한 한국 보이스카우트 부산 연맹의 김봉준 사무장이 참석해서 발대를 위해서 수고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표하고 제1755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주었다.

발대식에 이어 가진 선서식에서는 피정 지부 이승호 형제는 영조장 선서를 통해 보이스카우트 활동과 교회에서의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부산 서 지방부 보이스카우트 제1755대는 육성 단계 대표에 염호경 지방부장, 제1755대 대 위원회 위원장에 이상기 형제, 위원에 강신용, 안재석, 서양식, 한성재 형제, 대대장에 장인택 형제, 진급 담당 대장에 김정일 형제, 활동 담당 대장에 강명근 형제 등 지도자 16명과 대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정일)

전주 스테이크

청남 농구 대회

지난 4월 5일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각 와드와 지부의 청남들이 함께 모여 농구 대회를 가졌다. 진주, 노송, 중앙, 김제, 이리 지역에서 각 한 팀씩 출전해 가진 이 대회에서 청남들은 패어 플레이를 보여 주어 응원을 나온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대회 결과 전주 중앙 와드가 1위를 차지했으며 신대승 형제는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였다.(황인양)

광주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4월 19-20일 양일간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레스 디 피네가 장로의 감리하에 1997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피네가 장로는 모든 역원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주님의 영을 지니고 모임에 참여해야 하며, 문제를 풀기 위해 주님의 빛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최중배 형제는 합당한 회원은 모두 성전 추천서를 받아서 성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양혜란 자매는 가정 방문을 하면서 얻은 아름다운 간증을 전했으며, 장호근 형제는 가정에서 신권을 가진 형제들이 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또한 피네가 장로는 가족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고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일요일 총회에서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은 초기 성도들의 희생과 신앙에 대해 언급하면서 초기 성도와 같은 신앙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으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연구가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였다. 이어서 조길자 자

매는 보조 조직이 어떻게 가정을 도울 수 있는가에 관해 말씀하였고 이진 형제는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 간증했으며, 이해영 자매는 하와이에서의 선교 사업을 했던 경험과 간증을 전하였다. 또한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은 요셉 스키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번영했고 앞으로도 번영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피네가 장로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하며 특별히 신앙으로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서는 총장 와드의 박삼복 형제와 송정 와드의 문용태 형제, 농성 와드의 신승훈, 김재현, 박홍찬 형제가 각각 장로로 지지 받았다.

이에 앞서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테이크 대회를 위한 전야제 행사가 개최되었다.

16일에는 개척자 150주년 세미나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를 주제로 광주 신학원의 조용현 형제의 강의를 있었고, 17일에는 선교사들의 재능 발표 무대로 초기 성도들의 희생과 신앙을 주제로 한 연극과 이준규 장로의 "아드리드의 최후", "천국의 새" 등 팬플룻 연주, 통가 춤에 이어 구도자와 회원들이 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야제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가족 음악 경연 대회가 개최되어 총장 와드의 윤정규 감독 가족이 1등상을 차지하였다.

3일간의 전야제는 스테이크 대회에 앞서 회원들이 서로 단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박유미)

천안 지방부

전반기 지방부 대회

천안 지방부에서는 지난 4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선교부장인 홍병식 선교부장의 감리로 1997년도 전반기 지방부 대회가 개최되었다. 교리와 성약 4편 2절인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

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와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 말일성도의 표준 복장, 십일조, 근면, 일의 율법, 순결의 법, 지혜의 말씀, 성신의 인도’ 등에 대하여 지방부 내의 신권 역원들과 토론이 있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최근 개종하여 대천 지부 회원이 된 서광문 형제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딸 서정임 자매를 방문한 후 침례를 결심했다며, 이미 이전부터 비회원으로서 자녀에게 선교 사업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간증하여 많은 회원에게 감명을 주었다.

일요일 총회에서 이경은 지방부장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땅 끝과 모든 이에게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며, 대천 지부의 박경희 자매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 곳을 오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었으며 가족에게 더욱 더 많은 모범을 보여 모두가 하나님 왕국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눈물로 간증하였다. 또한 최근에 침례받은 홍성 지부 조성호 형제 가족은 교회의 ‘가족적인 분위기’에 많은 감명을 받아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고 간증했으며, 홍병식 선교부장은 북한의 선교 사업 시기가 임박했으므로 모두가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며 초기 성도들이 순종과 회생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과 회생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티스(Tice) 형제가 새로운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천안 지부의 조철원 형제와 김원배 형제가 장로로 지지 받았다. (이재광)

▼ 천안 지방부 대회에서 말하는 홍병식 대천 선교부장

너희 하나님의 사역에 증식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 본 란은 뉴스위크 1997년 5월 7일 한국판에서 ‘말일성도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미국의 동부에서 서투로의 말일성도 이주를 재연한 것을 보도한 것이다.



RELIGION

Onward, Mormon Pilgrims

모르몬교도 대이주 150년 만에 재현

‘악속의 땅’ 찾아간 조상들의 발자취 따라 1천6백km 장정

ANNE UNDERWOOD 기자

1백50년 전 미국 서부 개척시절 모르몬 교 선구자 페터 세션스는 모래독풍과 찢는 듯한 더위와 모기, 마차바퀴까지 빠지는 진흙길을 지나야 했다. 이제 그녀의 후손 샤우나 디킨이 고조할머니가 지냈던 고난의 길을 다시 밟으려 하고 있다. 지난주 3개월 일정으로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를 출발한 4백 명의 일행은 유타주까지 1천6백km에 걸친 모르몬교도 이주 대장정의 길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말이 끄는 포장이차뿐 아니라 의복과 음식도 당시 그대로다. 디킨은 ‘말들이 죽으면 우리는 모두 걸어서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갈 것이다. 나는 내 발들이 우리 조상의 행적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모르몬교도의 포항 마차 이주 1백50주년 기념사업회’는 출발 직전까지 모르몬교 신자와 비신자 등 참가 신청자 5천 명을 모집했다. 학생 단체처럼 하루만 동행하는 참가자들도 있다. 행사에 동원되는 포장이차는 43대, 척후(斥候)인 무를 맡은 선발대는 말을 타고 가며 도로로 가는 사람과 마차를 모는 트럭기사도 있다. 일부 열렬한 참가자들은 가난했던 모르몬교도들이 가계도구를 운반하던 그 유명한 의발수레를 끌고 도로로 간다. 그들은 네브래스카주를 통과할 때 주로 험난한 길을 이용할 것이다. 와이오밍주에서는 연방 소유지와 사유지를 두루 거쳐 7월중 유타주에 도착한다.

당초 모르몬 개척자들의 이주 동기는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땅과 금을 찾아 서부로 갔던 다른 개척민들과 달리 모르몬 교도들이 서부에서 찾았던 것은 종교의 자유였다. 1838년 미주리 주지사는 주경계 내의 모르몬 신자 ‘박멸을 촉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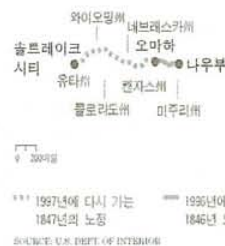


디킨과 네 딸은 1백50년 전 모르몬교 개척민들의 대장정 재현을 위해 포장이차까지 동원했다.

포고령을 내렸다. 1844년 일리노이주에서는 성난 군중이 모르몬교 창시자 조지프 스미스를 살해했다. 그의 후계자 브리검 영은 모든 주지사들에게 모르몬 신도들의 피신처를 마련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호의적인 답장을 보낸 지사는 한 명도 없었다. 오마하 부근에서 겨울을 지낸 영은 1847년 당시 멕시코 영토였던 현재의 유타주를 향해 출발했다. 그 후 22년 동안 7만 명 이상의 모르몬 신도들이 그들 나뭇의 ‘악속의 땅’을 찾아 길을 떠났다.

다시 가는 역사의 길

모르몬교 개척민들의 대장정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4백여 명의 미국인들이 오마하에서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1천6백km 길을 포장이차와 도보로 여행하기 시작했다.



물은 원래의 노정과 이런 여행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핵임보름이다. 포항마차 대일 전원이 보름에 가입했다. 응급시의 지원은 휴대폰으로 호출만 하면 이뤄지도록 준비돼 있다. 와이오밍주에 사는 주 방위군이 부상자 후송용 헬기까지 대기시킬 예정이다. 야영지마다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고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요리업자들이 음식을 준비한다. 그런 모든 조치로 여행이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락하지는 않다.

여행자들은 아침 5시에 기상해 말에 마구를 채워 7시에는 출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눈비나 날벼락과 상관없이 행군해야 한다. 종착지까지 도착한 사람들은 7월 22일 로키산맥의 마지막 능선을 지나 솔트레이크 평원이 눈 아래 전개되는 장관을 만끽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샤우나 디킨은 93일간의 대장정을 마칠 때 1백50년 전 그녀의 고조할머니가 일기에 묘사했던 기쁨과 안도감을 만끽할 것이다. ‘우리를 무사히 도착하게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내 가슴은 흘러넘친다. 아무 것도 잃은 것 없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다시 한 번 그 ‘악속의 땅’이 끈적하고 있다.

달구벌에 펼쳐진 개척자 150주년 기념 전시회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스테이크 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에 스테이크가 조직된 이래 한 예배당에서 교회를 찾고, 다녀간 방문자들이 가장 많았던 모임으로 기록된 이번 전시회는 초기 교회 개척자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배우고, 계승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상에 알리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행사를 위해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 한국 준비 위원장인 고원용 장로와 김종열 장로, 이도환 공보 위원장의 도움과 관리본부의 실무 협조를 받아,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와 스테이크 준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대환 형제를 중심으로 와드와 지부에서 선발된 분과별 20여 명의 준비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정리하였다. 준비 위원들은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손 그리고 발과 귀를 회원들과 함께 하여 스테이크 센터 전체를 개척자들의 발자취, 교회 역사, 비축 프로그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족 역사, 회원들의 작품 전시 구역으로 분류해서 준비하였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교회의 출판물과 자료를 전시 판매하여 지역 성도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방문자들에게 체계적인 교회의 교과 과정과 훌륭한 자료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화창하고 평화로운 봄기운이 감돌도록 날씨를 축복해 주시므로써 교회 앞을 시원하게 내달리는 신천의 아름다움과 라일락의 그윽한 향기가 어우러진 가운데 3일간의 전시회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었다.



▲ 대구 스테이크 개척자 150주년 기념 전시회를 준비한 준비 위원들

확대 복사를 하기도 하고, 컴퓨터로 보완해서 칼라로 인쇄하기도 하였다. 일부 자료는 교회 본부와 직접 접촉하여 구하기도 하였다. 정종철 형제는 개척자들의 역경과 그들이 남긴 유산을 되새겨 보기 위해 그 당시에 쓰였던 마차를 실물 크기로 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1전시관에는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라는 주제로 교회의 회복과 개척자들의 서부 이동, 성전, 물론

태버나클 함창단, 브리감 영의 업적 등을 소개 전시하였다.

"서부에서 한국으로"가 주제인 제2전시관에는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교회 지도자와 김호직 박사 등 한국 교회 개척자들의 발자취와 업적, 오늘날까지 교회의 주요 행사, 인물 그리고 발전상이 한국 역사와 교회 역사 비교 연대표와 함께 전시되었다.

제3전시관은 비축 프로그램, 예수님의 생애, 가정의 밤, 물론 메시지로 꾸며졌고, 제4전시관은 가족 역사와 개인 일지, 가족 선언문과 가족 신문 등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회원들은 스테이크의 계획에 맞추어서 3월 31일까지 151명이 간증을 써냈고 엘마서 36장을 암송하면서 자신을 준비했다. 또 초대할 재활동 대상 회원과 부모, 형제, 친구를 정해서 조직별로 확인해 나갔다. 시장, 도지사, 구청장과 각 언론계에도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였다. 전시회 포스터도 각 가정의 대

1

준비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올해 연초 모임 계획을 세울 때 4월에 대 전시회를 갖기로 계획하고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차대환 형제에게 그 책임이 위임되었다. 자료가 빈곤하였기 때문에 매주 두 차례씩 모여 준비 모임을 하여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2월 25일에는 관리 본부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관계되는 자료와 이것들의 활용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3월에는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들어가서 대구 지역 관련 소식들을 수집하였으며, 한인상 서울 성전장, 서원 관리 본부 대표, 도길회 형제를 통하여 관련된 자료들을 모았다. 또한 자주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보았으며, 수집된 사진은 다시 찍어 확대하고, 어떤 자료들은





문과 대학교 및 기타 여러 알릴 만한 곳에 3000매를 제작하여 게시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복음 선교사들이 전시회 기간인 3일 동안 함께 전시회를 도울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였다. 전시회 전날에는 모임을 갖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하여 참여한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스테이크 센터는 모든 면에서 방문자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2

전시회

첫날인 4월 18일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축하 화환이 도착하고 회원들이 초대한 방문자들이 한 두 사람씩 전시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복음 선교사들은 전시회장 앞 길에서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회를 소개하고 안내했다. 일부 선교사들은 지역의 주택가를 방문하여 전시회를 소개했다. 5시가 되면서 방문자 수가 200명이 넘었다.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몰려 왔다. 방문자들은 우리의 유산(책)과 핑클리 대관장 기사 회견 초록, 물문경, 기적의 역사, 전시회 안내서 등을 선물로 받았으며,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음료수를 준비하여 대접했다. 1개월 전부터 전시회 소식을 들었던 주민들이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방문자들은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다.

둘째 날에는 오전 9시부터 회원들이 초대한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전시회를 찾았다. 일주일 전 4월 12일자 매일 신문에 전시회를 알리는 지역 단신이 게재되었던 관계로 전시회 첫날인 4월 18일에 영남 일보에서 2명의 기자가 다녀갔으며, 4월 19일자 영남 일보에 전시회 소식이 실림으로써 신문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복음 선교사와 안경석 형제의 활약으로 오후 1시부터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전시관을 찾아 줄을 이었다.

전시회 셋째 날은 안식일이었다. 수성 와드에 사는 안식일 모임과 침례식이 끝난 후 곧바로 교회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전시회에 초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어서 오후 6시에는 이 지역의 개척자들과 함께 하는 노년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는 김병만 축복사와

대구 지역 초기 지부장이었던 도길회 형제가 참석했으며 두 분의 말씀과 준비 위원장인 차대환 형제의 말씀을 통해 초창기 대구 지역의 역사와 그들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다.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환영 인사에서 개척자의 신앙을 거울 삼아 이 지역과 가족의 현대의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자고 권고했다.



3

성과

스테이크 센터 전관의 전시물을 본 회원이나 방문자들은 한결같이 "이 전시회를 보지 못했다면 안타까울 뻔 했다."라며 놀라워했다. 대구 스테이크는 이 전시회를 통해 개척자들의 유산을 이어 받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더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아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는 그 주인공이 나와 나의 부모, 형제, 친척이라는 것을 회원들에게 심어 주어 그들이 곧 가장 훌륭한 구도자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주님의 산 증인으로 당당히 설 기회를 제공했다.

수성 와드의 이현정 자매는 전시회 몇 달 전부터 오빠를 위해 기도한 끝에 오빠를 전시회에 초대하였다. 전시회를 구경한 이 자매의 오빠는 교회에 나와보고 싶다고 했다.

침례를 미루던 차대환 형제의 어머니는 전시회 기간인 4월 19일에 침례를 받았다. 노변

의 모임에서 차대환 형제는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간증하였다.

최정희 자매는 처녀 시절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던 부모님과 조카를 초대

4

새로운 각오

대구 스테이크의 개척자 150주년 기념 전시회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한단계 발전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전시회를 마친 뒤 감독과 지부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

하여 전시회를 관람시켰다. 가장 많은 방문자를 초대한 분은 10명을 모시고 온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인 이병만 형제였다.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도 전시회 기간 동안 교회 앞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시회장으로 안내하였으며 강희준, 박문석 형제는 사진 촬영과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또한 지역 행정 수반인 대구 시장, 경북 도지사, 구청장, 언론사 등 각계에 **기적의 역사**와 교회 안내서를 보내어 알렸다. 이러한 결과로 지역 언론에 2회에 걸쳐 전시회가 소개되었고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과 차대환 형제, 가족 전시관을 담당했던 전영홍 자매가 2명의 영남 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교회를 소개했다.

전시회를 방문한 사람은 회원 400명과 비회원 방문자 800명 등 1200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회원들이 초대하여 참석한 가족과 친구들이 100여 명이 되었다. 방문자들 중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시회에서 바로 선교사 토론회를 하기도 하였다.

의 증인으로 나서며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여 선교 사업의 목표를 앞당겨 성취하도록 격려하고, 아울러 6월 14-15일의 부산 지역 대회와 3/4분기 성찬식에 지금부터 목표로 한 분을 초대하여 '나의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영이 모든 대구 스테이크의 성도들의 마

음을 풍성하게 한 이 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전시회를 준비한 준비 위원들과 대구 스테이크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김상현, 남태환)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 150주년 기념전시회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가정을 중시하는 대표적 종교인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의 대구스테이크(전정신부장)는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수성와드(교회)에서 1백50주년 개척기념전시회를 18일부터 20일까지 열고 있다. <사진> 신앙의 발자취, 대구교회의 역사, 물론메시지, 가족역사 및 개인일지, 가족신문등을 관람할 수 있다. <변성석 기자>

▲ 전시회를 소개한 신문 기사
(영남 일보 4월 19일자)

▼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전시회가 끝난 후 영남 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교회와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영남 일보 5월 1일자)

“가정의 소중함 깨우쳐야”

전 정 신 말일성도 대구스테이크장



나. 『예수 생존 당시의 초대교회와 구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전 세계 1천만신도를 움직이는 조직이 초기교회와 같은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 특히 가정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조상과 후손이 연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는 1847년 개척성도들이 미국 솔트레이크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1백50주년 개척기념행사를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다. 전정신 대구스테이크장을 만나 초기그리스도교회의 회복 주장 등을 들었다.

- 말일성도란 이름이 마치 종말론적인 느낌을 줍니다. 어떤 뜻일

제13960호 1997년4월30일 수요일

“가족신문으로 가족사랑 엮어요”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하는 시기이다. 개인의 삶의 가치를 가족에게서 찾는 경향이 두드러진 요즘, 가족신문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정이 있어 눈길을 끈다.

『재호』가정은 지상의 천국, 발행인 조찬래, 인쇄 권영홍, 편집 조수경·조현태, (45)·전영홍씨(39) 부부(대구시 북구 김단동)가 자녀 두명

때마침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첫째아이의 과제로 가족신문 제작이 있었고, 여기에 착안해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월1회, 4면으로 발행되는 가족신문은 내용도 다양하다. 콩트, 요리, 생활정보부터 가족간의 편지, 행사 및 동시에 이르기까지 일반신문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도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신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가 많다고 들려왔다.

전씨는 또 가족신문을 제작하면서 한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했다. 즉, 사람은 본능적 사랑보다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가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온가족이 합심해 신문물을 만들다보면 가족의 신뢰상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사람이 쏠려나가는 것.

전씨 부부의 앞으로의 꿈은 소박하다. 수경이(11)가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면 컴퓨터를 구입해, 좀 더 다양하게 편집된 신문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또 가족의 이야기를 자서전형식으로 담은 가족 역사책이나, 아이들의 매일매일의 모습을 남기는 개인역사책을 만들

게 있다. <김수영 기자>

조찬래씨 가정...편지·행사등 실어
섭섭했던일도 지면으로 풀어

과 함께 만든 가족신문 1면이다. 재호씨에게는 가훈인 근면, 성실, 정직이 적혀 있고, 그 밑에는 아들 현재(9)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와 이에 답하는 아버지의 편지가 잔잔히 쓰여 있다.

『너의 편지는 잘 받아보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그런 편지 써준것인지 미처 몰랐구나... 아파가, 현재가 바라는 좋은 아파가 되듯이 현재도 항상 아파가 되어라!』

결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것은 사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에도 『구원은 가족단위로 이뤄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별도의 성전을 지역별로 두고 생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조상을 위한 참례의식을 거행합니다. 또 매 주 월요일 밤을 가정의 밤으로 정해 자녀교육과 가족회의 등을 진행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공동체의 회복입니다.』

- 국내 신도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6개 스테이크, 6개지방부 산하의 1백61개 와드에 6만7천명 정도입니다. 대구는 3천정도 지나면 현재의 하나뿐인 스테이크가 3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신문을 만들고 있는 조찬래·전영홍씨 부부.

▲ 전시회를 방문했던 영남 일보의 김수영 기자가 가족 전시관을 담당했던 전영홍 자매의 가정을 방문해 가정의 밤 시간에 가족 신문 만드는 과정을 취재 보도했다.
(영남 일보 4월 30일자)

한국 교회의

개척자 이야기

홍병식 선교부장(대전 선교부)



절대자를 인식함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사연이 있었다. 무엇보다 먼저 나는 나의 부모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나의 부친(홍순석)은 참으로 대쪽 같은 분이셨다. 그 분은 "인민군을 지지한다"고만 말하면 살 수 있었을 텐데도 늘 "오직 대한민국만이 나의 조국일 뿐"이라시며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다. 나의 모친은 내가 여덟 살 때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지나다니는 개한테조차도 친절을 베푸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일찍이 나의 부친은 중앙 고등 보통학교를 다니며 은사이신 김성수, 송진우 같은 분들에게서 물려 받은 애국 정신으로 인하여 일제 치하에서도 창씨 개명에 반대하셨고 공립학교에서의 한글 교육이 금지되자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나를 즉시 자퇴시키고, 집에서 순수 한글을 교육해 주셨던 분이시다. 여하튼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사십리나 떨어진 외진 시골에서 기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보고 그렇게 홀로 초등학

교를 마칠 무렵, 아버지는 내게 차비와 함께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그 사십리 너머의 기차역 가는 길을 알려주시며, "이 돈 가지고 혼자 서울에 올라가거라. 가서 중앙 중학교를 찾아 입학 시험을 보고, 먼저 올라가 있는 네 형도 만나보고 오거라"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모친이 돌아가시자 형은 서울로 상경하고 집에 없었던 터였다. 생각건대 아버지의 말씀 인즉, 합격하면 다닐 수 있으되,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안되는 것이니 일찍잡치 시골에서 아버지 농사일이나 도울 각오를 하라는 뜻인 듯하여 어린 마음에 처음에는 서럽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생각해 보니 그것은 곧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강한 신뢰였으며, 그 분이 주시는 최초의 기회였다. 다행히 나는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게 되었고 마침내 서울에서의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주변의 모든 정황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뒤바뀌게 되고 말았다. 서울에서 형과도 헤어진 채, 혼자 구걸하며 고향으로 내려와 보니 부친은 이미 인민군에 의해 체포당하신 뒤였고, 드디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당하셨다. 장남인 형은 결국 납북되어 행방불명되어 지금껏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에야 지난 1966년 이북에서 사망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당시 어린 동생들과 함께 내게 남은 것은 오직 모든 것을 앗아간 공산당에 대한 증오 뿐이었다.

전쟁 직후라 해도 사회는 아직 낮에는 민주주의 밤에는 공산주의 하는 식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도처의 산속에 은신하여 세력을 유지하던 때였다. 당시 경찰은 나와 같이 17-8세의 나이에 부모를 공산당에 의해 여원 학생들을 모아 결사대를 조직하고, 총과 수류탄

을 주어 그와 같은 공산 세력을 토벌하게 했다. 수천 명이 지킨다는 그들의 요새도 우리 같은 결사대를 제일 두려워하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커녕, 부모를 잃은 것에 대한 증오로 불타던 그 많은 청년들 속에 끼어서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새벽 두세 시면 산을 넘나들며 적들의 요새를 격파하고, 물건을 빼앗았다. 그러는 와중에 거의 모든 동료들이 죽어갔다. 어찌 보면 내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총알이 내 얼굴을 바로 빗나가 옆 바위를 치며 파편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 무렵 그 때처럼 마음속으로 어떤 초인간적인 힘이 있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무어라고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절대자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며, 내게 임하여 나를 지켜 주었다는 느낌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 왔는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나중에 내가 미국에 들어가 살던 1960년 당시 교회 축복사이셨던 엘드리드 지스미스 장로에게서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너를 너의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하셨다"는 문구가 축복문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순간이었다.

하나님을 이해함

어느 정도 사회가 정리될 즈음에 나는 공부할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나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기독교의 일파인 장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며, 더욱이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전주

신흥 학교에서는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선했다. 당시 그 학교는 목사나 장로의 자제들이 공부하는 학교로서 대부분 그 곳을 졸업한 뒤, 신학교로 가 목회자의 길을 갔었는데, 고맙게도 학교 측에서는 내가 서무실에서 일을 돕는 조건으로 나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매일 있는 예배 시간에 배우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나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심지어는 당시 학교에 계셨던 교목 선생님과도 교리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을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결혼 관계는 어떻게 되나?” “나의 부모님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하는 수많은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나 그곳에서 배운 가르침대로라면, 내세에서는 가족 관계가 성립이 안되었기에 저 세상에서나마 사랑하는 부모님을 뵈 수 있으리라던 나의 간절한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러한 교리가 싫었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았다. 교교 수석 졸업자이자 졸업생 대표였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나의 향후 진로는 목회자의 길이 아닌, 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학자로서의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연유에서 서울대 문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한 18명 정도의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학교에서 1-2등을 다투던 수재들이었고, 나는 그 속에서 만족하며 술도 마시고, 반년 정도는 담배도 피우며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지금은 뉴욕의 한 대학의 물리학 박사이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같은 과 친구인 김호근으로부터 “너 기독교인이니?”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장로교에서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 때 그는 다짜고짜 “너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하고 물었다. 나는 그래도 배운 지식이 있기에, 모든 세상의 죄, 고통, 시련, 죽음이 그들로

부터 비롯되었으니 목사님 말마따나 그들을 저주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그는 말을 막으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너도 태어나지 못하였을텐데?” 하고 가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로서 그가 혼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그에게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 물어 보았고 나도 한 번 같이 가 볼 수 없겠는지 물어 보았다. 그는 미군 영내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닌다고 하였으며, 안식일 아침 중앙청 앞으로 나오면 된다고 하였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 나는 나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2년 반의 구도 생활, 나아가 영원을 향한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50년대 초인 그 당시는 아직 한국에 선교사가 파견되기 전이었고 나는 군인이었던 커데스(Kuddes), 그린 대위, 쉼웨이, 카맥 등을 만나 복음을 배우게 되었다. 참으로 그들은 한 손에는 총을 들었지만 한 손에는 경전을 들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애썼던 분들이다. 당시 함께 공부했던 분들로서 이영범, 박재암, 이호남, 최상흠 형제 등이 기억난다. 당시에는 6개월 정도의 복음 공부가 끝나면 침례 받는 것이 보통이었고, 모두들 그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워낙 감성적이라기 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편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복음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던 것 같다. 나는 구도자로 있던 2년 반 동안 그때까지 한번도 번역되지 않았던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을 다 읽었고, “대배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개조” 등 주요 참고 서적을 읽었으며, 당시 나왔던 교회 소개 책자들을 모두 섭렵하였다. 그러던 중 한 주일학교 교사의 잘 준비된 수업은 참으로 이후 내가 개종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석구 형제님의 주일학교 공과였다. 당시 미8군 영내에서 가졌던 예배는 주일학교 분반 시간이면 한국인들이 따

로 분반해서 공과를 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으며, 주일학교 교사는 당시 문교부 차관이셨던 김호직 박사와 해군 대위였던 이석구 형제님이 봉사하고 계셨다. 이호남, 최상흠, 정흠주, 정영주 등이 나와 함께 참석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내가 감명 받은 공과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대한 공과로서, 잃어버린 열 지파와 남은 두 지파, 그리고 나아가 에스겔서의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에 대한 설명은 참으로 논리정연하여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뿐 아니라 당시 일년여 동안 매일 새벽이면 8개월 정도 먼저 침례 받은 이영범 형제와 함께 나는 인왕산에 올라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곤 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침례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55년 8월 2일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이 한국에 오시던 날, 나는 침례를 결심하였고, 8월 14일 침례 교회의 침례당을 빌어 나는 커데스 형제를 비롯한 군인들로부터 신채원 형제 등 몇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초기 성도들의 모습

나는 영어와 일어를 할 수 있었기에 교회 초창기에 김호직 박사를 도와 자연스레 많은 통역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 돈 파월 장로와 리차드 데튼 장로를 공향으로 마중나가 데려오던 일이 었그제 같다. 당시 한국에 온 장로들은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던 북극동 선교부 소속이라 선교사 훈련원에서 일본어는 배웠을지언정, 한국어는 전혀 생소한 형편이어서 때로 급할 때는 학교 수업도 빼먹고 나와 그들의 통역을 도와야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당시 선교사와 복음 공부를 했던 이들 중에 훗날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오회영 형제가 기억난다. 그 오 형제가 데려온 사람들 중의 하나가 바로 한인상 형제이다.

북극동 선교부 산하에 한국 지방부가 조직되고 김호직 박사가 지방부장으로 나와

이호남 형제가 보좌로 수고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밖으로 전도 활동을 하러 나갈 수가 없었다. 나가기도 전에 먼저 선교사들을 찾아 와 복음을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로 늘 문전 성시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대학 병원의 의사가 잔뜩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느라 쫄쫄 매는 모습이 바로 당시의 선교사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또한 당시 교회에 나오던 그룹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다. 김호직 박사님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경기고와 서울대로 이어지는 학생 층이 큰 맥을 이루었다. 그들 중에는 수석 입학자 또한 한 둘이 아니었다. 그런 친구들이 교회 내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예배는 아침에 주일학교 저녁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모두들 도시락을 싸와 하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였었다. 특별히 1953-1954년 경으로 기억되는데, 영어를 잘하던 임성섭 형제와 함께 지금의 '성도의 빛'이나 초창기 선교부에서 나오던 뉴스 레터 '화이트 필드(White Field)'가 나오기 이전에 교회 뉴스 레터지를 스텐실에 철판로 써서 로울러로 만들던 일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어려웠던 때였지만, 당시 독신성인들이 정성들여 준비하고 참여했던 연극이나 무도회는 가히 수준급이었다. 침례는 최소한 6개월을 선교사와 공부한 뒤에야 고려되었다. 최고의 선교사와 최고의 교사가 복음을 전해 주었다. 비록 1959년 김호직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밑거름이 이후 생각할 수도 없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 당시 교회는 기혼자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대학생들뿐이었다. 교회는 서울의 중앙 지부(지금의 삼청 와드) 하나가 있다가 유락동에 동부 지부를 세운 참이었다.

도미

나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국을 떠나야 했다. 우선은 하고 싶은 물리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의 마찰 때문이었다. 나는 5.16 직전 27세의 나이였지만 부친의 지명도에 의해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다. 비록 낙선은 했지만, 이후로 나는 요시찰 인물로 분류되어 감시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5.16 이후 각계 인사들에게서 정부가 지지 성명을 받을 당시 성명서를 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어 종로 경찰서에 2개월간 구금을 당하게 되었다. 다행히 당시 내가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이 종로 경찰서의 경찰이었기에 구류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풀려나와 교회 내에서 중앙 지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에도 형사들로부터의 잦은 방문은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결혼 이후의 생활을 위해 국영 기업체였던 한국 미곡 창고에도 입사하려고 해보았지만 춘천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사표를 쓸 수 밖에 없었으며, 양부가 운영하던 중석 광산에 큰 도움을 준 것 역시 내게는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나는 한국 내에서 활동하려던 마음을 버릴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러한 나의 사정을 이해해 준 형사들이 신원 보증서류를 통과시켜주어서 나는 교회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1960년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으며, 이후 1963년에는 가족까지 모두 미국으로 옮기게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는 지금도 절친한 친구였던 이영범 형제의 절대적인 신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연세 대학교 4학년 1학기 시절 선교사 부름을 받았었다. 아직 휴학 제도가 없던 때라 선교 사업은 곧 퇴학을 의미하던 시절이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하나의 전통을 이루었다.

그 당시 함께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비록 자기 세대에 선교 사업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정신이 후대에게까지 먼

먼히 이어져 감을 보게 된다. 함께 신앙 생활을 하던 양종환 형제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 자란 그의 2세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하나로 시작한 우리 집안의 복음의 불길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남동생 우식과 여동생들—소영, 인순, 운심, 정남에게 전달되더니, 지금까지 그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굳건하며 이제는 그 자녀들이 시카고로, 브라질로, 로스앤젤레스로, 한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왔고, 나오고 있는 꿈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복음 안에서 충실하면 사회에서도 성공하며, 자녀들 역시 큰 시련이 없는 이상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여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통해 영원으로의 탄탄한 길을 갈 수 있게 됨은 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간증이다.

1950년대 한국의 초기 성도들이 보여 준 모습은 바로 이같은 하나님에 대한 조건없는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축복 받았던 모든 것, 축복 받고 싶은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축복 받을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 땅에 펼치는 데 헌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과 주님의 것 중에서 항상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교회가 제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부디 우리 모두 합당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우리의 후세와 이 세상에 값진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지난 4월 21일 청주 스테이크의 정태결 형제가 홍병식 선교부장을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홍병식 선교부장은 미국 샌디에이고의 내셔널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대전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아서 1995년부터 3년 임기로 봉사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98기
(1997년 3월 31일 - 4월 18일)



〈성 명〉

배기수 장로
김혜정 자매
조영직 장로
김선아 자매
이윤석 장로

〈출 신 지〉

청주 스테이크 예성 지부
서울 동 스테이크 번동 와드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청주 스테이크 공주 지부

〈선 교 부〉

서울 서 선교부
대전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선교부

(사진 설명) 왼쪽부터: 배기수, 김혜정, 조영직, 김선아, 이윤석

새로운 성전 선교사



1. 딕슨 부부

LaVern R. Dickson / Elizabeth Colleem G. Dickson

2. 글레스피 부부

Clinton G. Gillespie / Elma O. Gillespie

3. 리 부부

Leo J. Lee / Helen H. Lee

* 봉사 기간: 세 부부 모두 1997년 4월 24일부터 18개월간

(사진 설명) 왼쪽부터: 글레스피 부부, 리 부부, 딕슨 부부

해외로 부름 받은 선교사



박지영 자매

영동 스테이크
1997년 4월 30일
캘리포니아
에나힘 선교부



문정화자매

강서 스테이크
1997년 6월 18일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원 고 모 집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1. 청소년 대회

- 내용: 청소년 대회 기사 및 간증
- 분량: 기사-A4지 반매, 간증-A4지 1~1.5매
- 마감일: 1997년 8월 5일

2. 기사 송고 방법

- 성도의 벗 기사는 가능하면 컴퓨터 통신(Hitel: ldschrch)으로 보내 주시거나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입력 해서 디스켓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편집실 앞
우) 133-600
Fax: 02-254-3225